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5월 5일(금)
(음력 4월 10일)

Пятница

5 мая 2017 г.

№ 17(11673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5월 9일은 대조국전쟁 전승절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군사들의 열병식과 집회가 시작된다. 대조국전쟁에서 전사한 조상들을 기리는 <불멸의 연대> 행진에 시민 7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인들과 시민들은 승리광장에서 시작하여 영예광장까지 행진하고 성화에 헌화할 예정이다. 도시 여러 행사장에서는 공연이 펼쳐지고 군인발도 맞출 수 있다.

저녁 8시 30분 승리광장에서 대공연이 시작되어 명절행사는 밤 10시 화려한 불꽃놀이를 대미로 장식할 계획이다.

▲ 조상들을 기리는 <불멸의 연대>란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대회 개최

5월 11-1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코위너)의 주최 아래 제6회 국제컨벤션이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 세계 12개국을 대표한 100여명의 여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의 주요 주제는 사할린한인이다.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는 <사할린한인의 망향가>,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은 <사할린한인들의 아픔>,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장은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 김춘자 <우리말방송> 국장장은 <사할린한인의 오늘>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전 세계 한민족 여성 간의 연대와 교류 강화 및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주정부, 수산업문제 담당 부수상이 바뀌어

수산업문제를 담당한 사할린주정부 부수상 이고리 빅스트로브가 지난 3일(수) 사임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2년간 부수상직을 맡아왔다.

다음날 4일(목) 새 부수상으로 페르미 출신 아나톨리 마코예도브(1958년생) 생물학 박사가 부임되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소방관들 포상

지난 4월 28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화재방지조직 368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에 사할린주정부 알렉산드르 지트코브 부수상이 참석하였다.

사할린소방대의 역사는 1907년부터 시작된다. 지방 자금으로 첫 소방대가 알렉산드롭스크에서 조직되어 7명이 근무했었다.

"오늘날 사할린주의 80여 곳에 소방대가 배치되었다. 매일 30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교대하며 110단위의 전문기술들이 갖추어져 있고 작년에만 해도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744건의 진화작업을 하고 98명의 인명을 구하였다."고 러시아 사할린주 비상사태 총관리국 제니스 일리이노브 국장이 보고하고 우수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포상했다.

사할린주 공공예산 분야 직원 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사할린주 공공예산분야 유치원 하급직원·경비원·청소부 등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월급이 10% 인상된다. 최근에 사할린주 예산에 별도추가 자금이 생겨 주정부는 자금을 우선 러시아연방 <5월> 대통령령으로 제시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공공 예산 분야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무원 및 지도자들은 예외로 단지 유치원에서 교사를 도우면서 아기를 돌보는 직원, 경비원·청소부 등에게만 월급이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2016년에 평균 월급은 주내에서 6만 1000루블리에서 6만6000루블리가 인상되었다. 즉 임금인상은 7.3%으로 인플레이션 수준 보다 높은 셈이다. 지역 총생산이 6% 증가된 바 이걸 지역경제발전의 결실을 과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했다.

사할린주, 올해 66개소 사회 대상구조물 준공계획

사할린주두마의 연례 경제상황보고에서 올해 사할린 주립전산센터, 노위에·노위코워·빠루스노에 촌들에 소진료소와 야블로츠노에·아르빠기 촌에 외래환자 진료소, 유즈노사할린스크·우글레고르스크·아니와시와 쿠릴열도의 촌들 등 포함 7개소에 유치원을 비롯한 66사회대상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주지사는 보고했다. 또한 띄몹스코에 구역 물로조즈노에 촌 문화회관, 사할린 기술대학교 기숙사, <마야초크> 미성년사회복지센터, 장애우센터 준공도 포함하고 있다.

공항종합단지 공사는 올해에 착수할 계획이며 신규 아파트는 30만m² 를 건설할 예정이다. 체육 분야에서 포로나이스크 시에 바이에슬론 경기장, 수영장의 현대화, 스미르나이 마을의 경기

장, 토마리의 동계스포츠센터를 우선적으로 준공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코스모스>경기장 보수작업의 마무리와 각지방에서는 스포츠 경기장 27곳의 바닥을 폴리우레탄으로 포장하게 된다.

농업 분야는 대규모의 2개의 축산업종합단지를 완공할 전망이다. 이로서 트로이츠코에 촌에 젓소 1900마리, 코르사코브구역 라즈돌노에 촌에는 1000마리를 사육할 예정이다. 아니와 구역 타라나이촌 양돈농장은 기술공정에 따라 돼지 1만2000마리에서 6만2000마리로 증가시킬 전망이다. <오스트롭나야> 양계장은 계획대로 4개의 브로일러생산건축물을 재건 및 현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계획의 실현으로 금년에 닭고기 2000여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동 양

계장은 1년에 1억2000만 개의 달걀 생산량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니 워스두흐>스포츠단지는 2017년에 12킬로미터의 새 산악스키코스를 완공 운영한다. 여기에 2개의 공중케이블공사와 인공 눈을 만드는 제설기의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건물 공사프로그램에 착수했다. 5개년기간에 사할린에서는 10개소의 교사 완공, 운영할 전망에 있다.

보건 부문에서는 또 10개소의 사회대상 건설에 대한 설계 작성에 들어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응급치료소, 사할린주병원 외과건물, 새 주립소아과병원, 주중앙도시의 남과 북부에 각각 새 종합진료소, 질병관리센터를 준공, 운영할 계획이다. 코르사코브 구역병원 내에 새

전염병 대응센터가 개설되고 5개년기간에 여러 마을에서 소진료소와 외래환자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할린주두마는 사할린주정부의 계획안에 지지하였다. 주두마의원들은 주지사의 보고를 토론하는 과정에 농업분야의 신생산계획과 교육 및 보건건물 건설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오늘 호무토워에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1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곳에 종합진료소의 건설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 올해엔 한 교대에 160명이 방문할 수 있는 신종합진료소 설계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남부 사할린에서만 하여도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15곳의 보건대상 구조물의 건설을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사할린주두마 위원리 고릴립스키 의원이 덧붙였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문화예술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감동 사할린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은 이철주 문화기획자(서울)와의 인터뷰

이철주 문화기획자(서울)는 2014년에 새 고려킨문사와 공동으로 <유라시아: 평화의 길> 청소년미술전시회를 추진하여 사할린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그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 KBS교향악단 등이 참여하는 사할린 한려축제를 주관한 바도 있다.

이번에 이철주 프로듀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판화 작가인 이철수 판화가를 사할린 사람들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철수 화백의 개인전은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5월 5일 오후 5시 열린다. 이에 앞서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철주 문화기획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 피디님은 2014년부터 사할린을 드나들고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는데 러시아, 사할린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피디님께는 사할린이 무엇입니까?

- 해외동포 사업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입니다. 지난 어려웠던 역사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미안했고, 민족혼을 지켜주어 고맙고, 그래서 동포애로 반가웠습니다. 따라서 동포 사업은 스스로에게 민족심을 키워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할린은 더욱 더 심장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감동에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사할린 주민을 감동케 하고, 이것을 통해 러시아인들과 한민족이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남북이 자유롭게 만나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철수 화백님의 사할린 전시를 어떤 계기로 실시하게 되셨습니까? 판화가님과는 어떤 인연인가요?

- 제가 대학생 시절 한국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절정이었고, 저 역시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철수 판화가의 그림은 가장 강한 선동의 무기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에서는 삶의 지혜와 비전을 이철수 판화가의 그림에서 찾고 있습니다. 해서 사할린 주민과 동포분들에게 이철수 판화가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잠시 이철수 판화가에게 목판화를 배운 인연도 있습니다.

- 제가 알기엔 이 피디님은 올해 사할린 한려 문화축제 계획하는데도 협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할린 말고는 또 어디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지요?

지난 달 사할린 방문에서 주한인회 측에서 한려문화축제의 총감독 제안을 받았고, 저 역시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한국의 국립국악원 측에 이번 문화 축제에 협조를 제안드렸고, 특히 사할린 현지에 악기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올 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3가지입니다. 일단 민주화 30주년 기념하는 행사 총감독직을 수행해야 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공간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동포미술가들의 작품을 소장 및 연구, 전시하는 국제평화미술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애정이 가는 <에트노스>에 슬학교 학생들이 한국 방문시에 전습을 위해 서울의 훌륭한 공연장에서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할린에서 하고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요?

- 1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한국의 아이돌 스타의 한류 공연과 한국의 최정상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야외 오페라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려문화축제에서는 늘 한국의 최정상의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최고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할린에서 남북의 문화예술인들이 만나 통일예술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디님의 모든 기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가가린라이온스 클럽, 1주년 기념

1년 전에 사할린에서 가가린라이온스 클럽(회장 천영근)이 탄생했다. 첫 생일잔치를 지난 4월 29일(토) 가가린라이온스 회원들은 <메가팔라스>호텔 10층 연회장에서 가졌다.

가가린클럽을 축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123지구 류드밀라 와실첸코 총재, 한국에서는 가가린클럽 스폰서인 경기동탄라이온스클럽의 오호승 회장을 비롯해 김도수 차기 회장, 김희태 전 회장, 강석철 재무 총 4명이 사할린을 찾았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두마 예.스틀라로와 의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두마 정 알레리 의원을 비롯 주·시 정부 관계자, 베테랑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라이온스클럽은 세계 212개국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대규모 봉사단체다. 비슷한 체제의 활동을 한 유즈노사할린스크 로타리 클럽 회원들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축하했다.

행사는 가가린라이온스클럽의 강송희 이사과 서 알렉세이 회원이 맡았다.

행사는 많은 축하와 시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동탄라이온스클럽이 준비한 포상이 많았다. 오호승 동탄클럽 회장은 이날 천영근 가가린클럽 회장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가가린클럽의 봉사활동(동포 1세 후원, 양로원 지원 사업, 어린 환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슬라이드쇼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봉사정신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한 가가린 클럽의 새 회원들은 이날 증명서와 클럽의 조끼를 받기도 했다.

5월 1일 동탄클럽 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회, 새고려킨문사를 찾아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후원금을 전했다. 대표단은 비코브도 찾았다고 알려졌다.

(배순신기자)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플래시 몼을 진행

5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콤포몰레츠>영화관 앞마당에 100여 명의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 선수, 젊은 교사와 기업인들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특별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에 소치에서 개최될 제19회 세계청년학생축전까지 165일이 남았음을 상기시키고 플래시몼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주최 측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상호간 활동을 준비하여 청년들은 페이스페인팅, 스포츠 물플레잉에 참가할 수 있었다. 모든 희망자들은 자원 봉사자들에게서 축전 상징인 카모마일을 받았는데 카모마일은 전통의 계승, 세대간의 결속, 국제사회의 평화와 단결을 의미한다. 도시의 예술단들은 모인 관중들 앞에서 신나는 춤의 무대를 보였다. 행사 조직자들은 주스포청청소년정책부,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이니셔티브센터와 <러시아청년연합>사할린 지부가 나섰다.

제19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소치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150개국을 대표하는 18-35세의 젊은이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주 대표단도 역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청년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주스포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овели флешмоб

Более 1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журналистов, спортсменов, молодых учителе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ышли 1 мая на площадь перед кинотеатром "Комсомоле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тобы дать старт своеобразной эстафет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Они пришли сюда,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флешмобе, и напомнить, что до старта XIX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октябре 2017 года в Сочи, осталось 165 дн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молодежи различные интерактивы: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от волонтеров ромашку — символ фестиваля, означающий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традиций,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мир и единство всего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делать аквагрим,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портивном квесте. С зажигательным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перед собравшимися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город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выступ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XIX Всемирный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пройдет с 15 по 21 октября в Сочи. Он соберет более 20 0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150 стран мира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5 лет.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станет участником самого ожидаем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события этого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일본 유학에 사할린 사람들을 초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일본총영사관이 2018년

일본에서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일본 외무성 사할린지역 공관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대학생> 장학프로그램 일환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고 한다. 자신의 전공에 따라 연구활동을 희망하는 자들은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인턴-연구자>프로그램)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서류접수는 2017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며 장학위원회는 서류심사 결과를 6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 학과목 시험은 6월 30일에 치러지고 면접은 7월 1일에 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учебу в Японию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о набор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 обучения в Стране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в 2018 году.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островно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по стипенди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тудент». Желающим занимать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упить в магистратуру или докторантуру яп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учной степени (программа «Стажер-исследователь»).

Документы принимаются с 28 апреля по 9 июня 2017 года. О результатах конкурса анкет комиссия объявит 26 июня. Экзамены по основным предметам состоятся 30 июня, собеседование – 1 июля.

(7면에 계속)

한국어말하기대회에서

<한민족 언어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담긴 학생들의 발표

지난 28일(금)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에서 정례 사할린주 한국어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주정부(주교육부)·블라디보스토크주재 한국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국립대(어문·역사·동양학대학) 주최로 진행된 이대회에는 25명의 학교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이번 말하기대회의 주제는 <한민족 언어의 아름다움과 지혜>였다.

대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할린국립대로마노와 마리나 부총장과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참가자들을 환영한 부총장은 '민족의 지혜가 담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면서 학생들에게 승리를 기원했다. 김주환 원장은 준비를 많이 한 참가자들에게 "말하기대회의 진정한 의미는 1등, 2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한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말하기 대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학생부에 출전한 학생 16명은 이날 <홍내쟁이 도깨비>란 시를 읊어야 했다. 학생부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좋은 실력을 보여주었고 일부 학생들은 연기력도 아주 좋았다.

사할린 한국어교사협회 회장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교수,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흥정환 지점장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등 - 김미숙,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전 제9동양어문학교), 6학년
- 2등 - 한 다니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 5학년
- 3등 - 박 알리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김나지아, 5학년.

이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동양김나지아, 제2 김나지아와 제30중학교 학생들이 대표로 출전했다. 제2김나지아 같은 경우 한국어수업은 이번 학년도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다. 교사는 사할린국립대 졸업생 체플라예와 알렉산드라다. 주최 측은 대회에 코르사코브, 홈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지방 학생들이 참가한 데에 대해 기쁨을 표명했다.

대학생부에 참가한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총 9명은 자유 주제로 발표해 정해진 관용어 중 최소 20개를 활용해야 했다.

6개월 만 한국어공부를 한 돌린스크 제1학교 10학년생인 이 드미트리리는 정말 용감했다. 이 발표가 좋은 경험이 될 거라 믿는다. 동양김나지아 조 알리나 10학년생과 코사코브 제4중학교 김 크세니야 10학년생은 한국어를 전공한 대학생 못지 않게



발표했다. 주제는 한국 유학부터 생활 속 속담 활용, 다문화사회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했다. 이번에 출전한 대학생 모두(5명)가 러시아인이었지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기도 했다. 한국어에 대한 이들의 진심과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다.

올해 말하기 대상은 사할린국립대 4학년생 예르쇼와 올라가 차지했다. 부상으로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이 제공하는 사할린-서울 왕복 항공권을 흥정환 사할린지점장은 예르쇼와 학생에게 수여했다.

2등은 사할린철도대학 3학년생인 쿠즈네초와 마리아가 했다. 한국어가 아닌 경제전공을 한 그는 정확한 한국어 발음과 고급 언어실력을 보여주었다. 3등은 한 사할린국립대 3학년생인 포포브 예고르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모든 학생들은 사할린주교육부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주교육부의 감사장을 학생들을 지도한 한국어교사들에게도 수여했다.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안겨주는 선생이 없었으면 한국어도 살아남지 않았을 것이다.

(글/배순신, 사진/콘지우스 마리아)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친선의 교훈'

지난 1일(월) 봄과 노동에 날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섬> 체호프 책 문학미술박물관에서 '친선의 교훈'이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주최측은 본 박물관과 사할린주민족아삼블레야이다. 이날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춤과 요리가 소개된 가운데 민족음악을 즐길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서 코르사코브시한인회 소속<미니말>팀(지도: 민 왜체슬라브)이 한민족의 복을 신나게 연주했다.

이날 모두가 우즈베크, 한민족, 타타르 등 요리들을 시식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태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18년에 새 응급진료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응급수송진료소 차고를 개축해야 한다.'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지사는 부문별 부지도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이와같이 주장하고 의료대상의 기술장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사할린주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우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응급진료소를 개축할 전망이다. 지난 세기60년대에 운영되었던 노후건물은 현대의료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척박한 의료 환경에다가 새 의료장비들을 설치할 공간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빠른 시일 내로 응급진료소 차고부터 바꾸어야 한다. 새 구급차 제공, 환자들의 호출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환자이송과 운행, 속도와 안전을 겸비한 B와C급차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설계안에 따라 내년에 새 응급진료소의 착공을 요청했다

"사할린주에는 새 병원 및 종합진료소가 몹시 필요하다. 주내 의료기관들의 건물은 다수가 노후상태다. 우리의 과제는 이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새 응급진료소 건설 착수를 시작으로 계획대로 현대식 주립소아과병원의 시설 개선 및 주중앙도시의 남부와 북부의 보건소와 외래진료병원의 현대적 설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결산회의를 진행하며 강조했다.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규

(전호의 계속)

"우리 민족을 돕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야!"

일본에서 사할린 한인의 이산가족 찾기가 진행되었음에도, 이회팔 씨를 비롯한 <화태귀환 재일한인회> 회원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다. 아니, 일을 치르고 나면 기쁨보다는 오히려 진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가슴에 남곤 했다. 사할린 한인의 완전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고향향을 지적에 두고도 남의 나라 일본에서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하는 현실이 쓰라리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런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된 것은, 1989년 7월에 한일 양국 적십자사로 구성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가 만들어지면서였다. 이와 더불어 사할린 현지에서 잇달아 <사할린주 이산가족회>와 <사할린주 한인노인회>가 결성된 점도, 일본에서 귀환운동을 벌이느라 반평생을 바쳐온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야 사할린 한인과 한국 국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로 우뚝 섰다는 것에, 이회팔 선생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우리 민족을 돕는 것은 우리 민족뿐입니다. 일본이 해줄 리도 없고 미국이 해줄 리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나는 고향에서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인양된 사람 중에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한 사람들은 우리들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민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칭찬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독한 삶, 그래도 계속 간다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후 수십 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오로지 스스로의 의지와 동지들이 보여준 신뢰에 의지해 귀환운동을 벌여온 이회팔 선생.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을 만큼, 현재 선생의 위치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평생을 주변인, 경계인으로 살아온 탓인지, 우리가 자택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선생이 처음으로 꺼낸 말은 "고독하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와주시니 반갑기가 그지없어요. 내가 사할린 동포들을 구한다고, 내 대에는 힘당은 대로 50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없었거든. 오늘이 처음이지 싶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의 희끗한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가끔씩 떨리는 입술과 뺨에도 고독의 인장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알겠다. 하지만 그 고독이 처연하기보다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어찌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사람만이 지닌 향기가 선생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일본에서 진행된 이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 이듬해인 2014년 4월 KIN이 주최한 행사(「네트워크 포럼-해방되지 못한 사할린 한인」)에 이회팔 선생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나는 또 한 번 선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KIN의 10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며 말문을 연 이회팔 선생은 인터넷으로 일본과 사할린 현지를 연결하여 화상토론을 하는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계속)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овышение пошлин в рамках FTA с США нанесет ущерб экспорту РК

В случае изменения уровня пошлин вследствие пересмотра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экспортные убытки РК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ующих пяти лет могут достигнуть почти 2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30 апреля. В документ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о два сценария. Первый о случае, если США путем повышения пошлин решат вернуть объем торгового дефицита до уровня, фиксировавшегося до 2012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из-за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ежегодный рост торгового дефицита США относительно РК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200 млн долларов. Речь идет об отраслях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сталелитей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случае изменения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этих отраслей экспортные убытки РК могут достичь 1,7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учитывается потеря 90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отери и другое. Есть и второй возможный сценарий, в которо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перенос полной отмены пошлин на пять лет. По словам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Чонбук Чхве Нам Сока, который подготовил вышеуказанный доклад, в случае пересмотра торгов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К и США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 реализация первого сценар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дел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а поддержку спортсмен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выдел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а сумму 2 млрд. вон или 1,7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оддержку спортсменов в подготовке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в 2018 году. Это дополнение к средствам, выделенным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змере 33,7 млрд. вон или 29,62 млн доллар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поможет семи федерациям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расшир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и найме специалистов. 19 апр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роведёт второе совещание Группы поддержки способно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с целью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на тестовых играх и обсудить план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по числу медалей на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РК надеется попасть в первую четверку, получив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20 медалей. Лучшие для РК зимние Игры были в 2010 году в Ванкувере, когда удалось завоевать рекордные 14 медалей, в том числе шесть золотых, и занять пятое место.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корейцев ожидают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граждан РК – 55,1% - считают, что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18 в Пхёнчхане пройдут успешно. 62,9%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ветили, чт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является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к ним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Что касается условий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Игр, то 17,9%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назвали каче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8,9% - удобств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5,8% - качество работы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персонала. 9,2% респондентов хотели бы поехать на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а среди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люди больше всего хотели бы посмотре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 41,6%. Далее следовали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игр,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шорт-трек. 71,4%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хотели бы посет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еста, расположенные рядом с Пхёнчханом.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местом был назван город Каннин. В опросе, проводившемся с 15 по 24 марта, участвовали тысяча жителей РК, которые осведомлены о проведении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плюс-минус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Школьники Франции смогут по желанию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чиная с сентября, в школах всех ступеней Франции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параллельное обучение на француз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Париж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граммой,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изучать на двух языках такие предметы как история, математика и литератур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яде школ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паралл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французском и одном из 17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английском, испанском, немецком,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и ряде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о Франции придаё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такому паралле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поскольку оно позволит француз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культурой.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намерено направи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о Францию. (RKI)

Танцы «ЭТНОСА» вновь заморозили публику

30 апреля на сцене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выпускной экзамен по предмету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рамках отчётного концерта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м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каждый раз вызывают у зрителей но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и эмоции.

В этом году к выпуску готовится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Кенари» (руководитель Евгения Ким).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этот коллектив вернулся из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где стал Лауреатом 1 степен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Планета будущего». На экзамене коллектив представил три очень ярки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постановки: «Шаманский танец», «Танец с ручными барабанами» и «Танец с медными тарелками».

Наряду с выпускным классом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и учащиеся остальных классов. Практически всё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чиная с 3 класса, принимали уча-

стие в концерте.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чередовались с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ми.

Ансамбли как ягымов позволили слушателям насладиться мелодичностью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 от простых напевов до сложнейших вариаций извест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азнообразием репертуара и масштабностью постановок удивили ансамбли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овые образы, созданные ими, покорили зрительские сердца.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на сценическую площадку вышли учащиеся специализации «Вокальное творчество».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второй год. Появление вокалистов, исполнивших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е у молодежи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было встречено публикой восторженно.

Все номера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визитными карточками коллективов, состоящих их фотоколлажа. Фотографии ярко представили творческую жизнь всех коллективов.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директор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Эйдинова Наталия Семёновна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л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нцерта за доставленную радость.

Юлия Син

Ракеты за миллиард

В Сеуле заявили об успехе последнего ракетного запуска, осуществленног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опрек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заявлениям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испыт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29 апреля были успешными.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риш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о недавнем запус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ы. Все это произошло на фоне споров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то должен платить за размещение ПРО США в Корею.

Напомним, что в субботу из уезда Пукчхан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Пхёнган, что географически в центре страны,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американских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ракета пролетела примерно две или три минуты и взорвалась на высоте 71 к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в Сеуле заявили, что запуск закончился неудачей. Были высказаны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спытывала какую-то модификацию твердотопливн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Как мы теперь считаем, ракета не взорвалась из-за каких-то неполадок, а была преднамеренно подорвана, так как отрабатывалась детонация ядерной боеголовки", - процитиров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канал YTN слова неназванного чиновник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 Сеуле пересмотрели свои выводы и признали, что запуск был успешным, а КНДР испытывала не столько саму ракету, сколько боеголовку.

Как пояснили эксперты, ракета,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лететь около трех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либо взрывается ранее, либо после высоты в 20-30 км уже окончательно доказывает, что запуск прошел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и следует по нормальной траектории до конца. Так как взрыв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на высоте более 70 км, то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убедились, что ракета летит нормально, а затем уже произвели подрыв самой боеголовки, что и было главной целью старта. Было также сказано, что ракета следовала в сторону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Ф, но обломки уп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ША требуют от Сеула заплатить за батарею ПРО и размещ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Эксперты также напомнили, что после последнего ядерного взрыва КНДР, произведенного 9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хеньян впервые заявил об "испытании ядерной боеголовки". Нынешний запуск поэтому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разработок. Системы доставки, то ес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ракеты, уже запускались, сама боеголовка в стационарном положении в земле была подорвана, а теперь отработали то, как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детонация в

воздухе. То есть, если резюмировать, Пхеньян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успешно "доводит до ума" все элементы ракетно-ядерных ударных сил.

Споры по поводу степени прогресса КНДР в сфере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дело обычное, учитывая 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формации по этой теме. Однако неожиданно возникш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спор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то будет платить за ПРО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и,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Юг начал свою игру, пытаясь надавить на позици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рампа. Напомним, что на днях лидер США заявил, что потребует от Сеула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ов за размещ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мериканских противо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THAAD. Если Обама был согласен предоставить батарею ПРО даром, то у Трампа, судя по высказываниям, более прагматичный подход. "Я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Южную Корею, что надо бы заплатить. Эта система феноменальная, она позволяет сбивать ракеты прямо в небе. Она стоит один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ов", - отметил на днях Трамп в интервью "Рейтер".

Попытки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загасить возникший скандал и публично заверить, что "Корея платить ничего не будет, и все предыдущ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 силе", привели лишь к новой шумихе. Все завер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разбились о слова помощ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ерберта Макмастера. В интервью телеканалу Fox News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се соглашения будут в силе, пока по ним не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н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мекнул, что от Сеула потребуют заплатить не только за батарею ПРО, но и увеличить ту сумму, которую Корея платит за размещение у себ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произошедший "слив" телеканалу YTN о новых оценках Сеула ракетного запуска КНДР является преднамеренным. Официально Минобороны Юга сказал лишь, что "тест 29 апреля скорее всего закончился неудачей", а вот после разразившегося по поводу оплаты батареи ПРО США скандала появились "уточненные оценки", которые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Мнение о том, что "запуск был успешным и что КНДР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вивает свои ракеты и ядер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пол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пытк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доказать США, что раке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евера - это угроза уже не только для Сеула, но и для Вашингтон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заявить южнокорейцам, что ПРО США в Корею защищает не только Южную Корею, но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ем временем, Пентагон сообщил о намерении провести 3 мая испытания нов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канал Fox News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США. Эти испытания станут своеобразным ответом на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КНДР, полагают на телеканал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одноименная площад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азднованию 72-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ждут выступления фронтовых бригад, концерт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парад и военный салют.

Самым масштабным и народным действием станет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памятной колонне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дедов, прадедов, героев войны и участников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пройдут около 7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бор участников шеств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лонн начнется в 8.30. Начало колонны - перекресток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Движение колонны начнется в 9.20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площади Победы. Участники шествия разместятся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площади и станут зрителями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арадные расчеты и военная техника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К югу от площади выстроится военная техника.

Старт параду и торжественному митингу будет дан в 10.00. Расчеты промаршируют в сторону площади Славы. Туда же на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отправятся ветераны войны,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9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концертные фронтовые бригады. Стилизованные грузовые машины с творче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проедут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по областному центру и планируемому району. Две машины отправятся по городскому маршруту, пунктами остановки которого станут: в 11.30 - кинотеатр «Комсомолец», в 12.00 - пл. Ленина, в 16.00 - пл. Победы. На центральных площадях города выступление музыкантов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работа полевых кухонь, которые традиционно угостят всех солдатской кашей.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будет ждать выступление московского ансамбля русской песни «Бабкины внуки». В полуторачасовом концерте прозвучат любимые многими и ставшие народными песни.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начнется в 16.00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картодрома.

Завершится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которая начнется в 20.30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Ку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станет фейерверк и военный салют, которы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2.00.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Победы, пройдут также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коло 100 сахалинских пожарных отмечены наградами за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и по случа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368-й годовщин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России, прошло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тория службы на Сахалине берет начало в 1907 году, когда на местные средства в посту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м была создана первая пожарная часть. Работали в ней 7 человек.

- Сегодня пожарная охра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свыше 80 частей и отдельных пожарных постов, которые размещены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Ежедневно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заступают более 300 огнеборцев и 110 единиц спецтехники. Только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тушено 744 пожара, спасено 98 человек, - сообщил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нис Ильинов.

Показавшим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жарным он вручил ведом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Шесть огнеборцев из первой и шестой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ых ча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один сотрудник Росгвардии из Невельска удостоены медалей «За отвагу на пожаре». В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благодаря их решительным действиям были спасены жизни пяти человек при пожаре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сотрудников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а также ветеранов службы поздравил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Он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лавы области шести отличившимс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работникам. Среди них и сотрудник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которые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спасении людей с оторвавшейся в заливе Мордвинова льдины.

В честь Дня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России 17 ведомственных медалей «За отличие в службе» вручены сотрудникам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защиты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ощрены 77 работников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региона.

66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в строй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году

Среди них областной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3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 – в селах Новое, Новиково и Парусное и 2 врачебные амбулатории в селах Яблочное и Арги-Паги.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7 детских садов в город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глегорск, Анива, а также в районах и селах Северных и Юж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ежегодного отче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числе вводимых в этом году объектов - дом культуры в селе Молодеж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бщежитие на 150 мест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а,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Маячок»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валидов.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ы приступи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эропорт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 сдать более 3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овостройках. В сфер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едстоит ввести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иатлонного центра,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 универсальным игровым залом и бассейном в Поронайске, стадион в Смирных, цент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Томар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стадион «Косм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йонах появятся 27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с полиуретановым покрытием для игр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занятий по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жидается открытие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 сразу двух крупны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в районе села Троицкое - на 1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и в селе Раздоль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круга - на 1000 голов основного стада.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Таранай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выйдет свин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оголовье животных там вырастет с 12 до 62 тысяч.

А на птицефабрике «Островная» продолжат реконструкцию и модернизацию еще 4 корпусов бройлер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о позволит нарастить выпуск охлажденного мяса птицы в этом году до 2000 тонн и более.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приятие увеличит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яиц до 120 миллионов штук в год.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2017 получит около 12 километров новых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Здесь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2 канатных дорог, модер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стартовала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школ. В течение 5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возведут 10 зданий. Первые из них - в Долинске и Тунгоре введут в строй следующим году. Будет заверш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колы №1 в Аниве.

А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для последующего возведения еще 10 объек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троят станцию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хирургический корпу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нов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детскую больницу, две поликлиники - в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частях города, а также инфекционную больницу. В Корсакове появится новое инфек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е пункты в течение 5 лет сдаду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селах Вяхту, Зональное, Красная Тынь, Старорусское и Охотское, амбулатории - в селах Мгачи, Стародубское, Кировское и Восток.

Эти планы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депутатского корпуса. В своих комментариях к отчету губернатора парламентари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знач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нов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в регионе. Особо была отмечена важно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ан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Лично для меня показателен пример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жителей юж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годня в районе Хомутово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ет - за 5 лет он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3 тысяч человек. Очевидно, что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стро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оликлинику. И это будет сделано.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н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а 160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Разместится он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на площадке между железной дорогой и проспектом Мира. Всего же только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более 15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2016 году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а объем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и льготы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почти 11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на 400 миллион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А в 2017 эта сумма выросла еще на 200 миллионов.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у сахалинскую семью в среднем сейчас приходится пособий в денежном выражении на 80,9 тысячи рублей. Это превышает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2015 года на 25 тысяч рублей. Об этом было сообщено в отчете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

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жителей сегодня по-прежнему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в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 2016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 применять новый принцип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оставив во главу угла критерий адрес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оказыв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ддержку самы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ней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лся размер помощи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жителей, семей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детей, а также имеющих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инвалидов. Например,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на детей для одиноких малоимущих матерей стало вдвое больше. В 2 раза выросли выплаты на питание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3 лет,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тудентам теперь дважды в год оплачивается половина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к местам обучения и обратно. Целая серия льгот адресована семьям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Они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жилья.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теперь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Увеличен и размер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из его средств - с 15000 до 30000 рублей.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вывоз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на лечение, мы оплачиваем и проезд, и проживание. Такую же поддержку они получают и при выезде на лечение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касается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лучении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м выплачивается денежная сумм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здесь жиль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также солидные выплаты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счет эт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справили 1966 семей.

В 2017 перечень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расширен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лодые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статком уже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коляски и комплекта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А с мая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начн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Кроме того, расшир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именения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 примеру, он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на ремонт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или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ежемесячно или ежеквартально в сумме от 5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Важ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сейчас обсуждается и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закона,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го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для мужчин, достигших 60-ти лет, и женщин - 55 лет. Наша задача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 оставались один на один с этой проблемой, тратили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на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услуги, а получали их своевременно, без долгого ожидания.

В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По итогам 2016 года 53 учреждения были оснащены пандусами, подъемника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для слабовидящих и граждан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В Ногликском, Охин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обретен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автобус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еревозить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сеть пунктов прок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предстоит обеспечить им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валидов. О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до 200 человек в смену, в том числе 25 в условиях стационара. На базе учрежден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цех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протезов.

Действующая соц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о стороны депутатского корпуса. Многие принятые областью соци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ранее были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ны в парламенте.

- Подход властей, при котором помощ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лучают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еся граждане,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 числа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оптимален. При этом важно, что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доходной части бюджета, объем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были не только не снижены, а напротив - даже увеличены,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 Отчет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проделана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в части расширения перечня льгот и пособ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личн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тали получать самые незащищенные слои населения. Это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 сказ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Эдуард Тар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출신인 멜라니야 마모노와 <2017-솔로부시카> 전국콩쿠르에서 최우수상 따내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전국 아동청소년 민속예술전문콩쿠르에 13세의 홈스크 시민 멜라니야 마모노와가 참가하여 <민속 보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은 전 러시아국영라디오 TV방송국 소속 <즈윈니차>보컬무용양상블과 <모스크워야>양상블의 지도자이자 국민배우인 왈레리 네스체로브였다.

멜라니야는 <나체즈다>리체이에서 공부하면서 아동예술학교 피아노과 학생으로 몇 년간 홈스크중앙문화회관에서 보컬(교사: 갈리나 사라바노위츠)을 배우며 도시 여러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다.

작년에 멜라니야는 <빅토리아>주콩쿠르축제의 <솔리스트>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Сахалинка Меланья Мамонова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ловушка-2017"

24 апреля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конкурс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фолькло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13-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а Меланья Мамонова. Она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 лауреата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Народный вокал".

Председателем жюри конкурса являетс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окально-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ансамбля ВГТРК "Звонница" и ансамбля "Московия",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Валерий Нестеров.

Холмская певунья учится в лицее "Надежда", является также ученице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отделение фортепиано), несколько лет упорно занимается вокалом в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Холмск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Галина Сарабанович), выступает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гор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ланья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Виктория" в номинации "Солисты".

유즈노사할린스크, 성인을 위한 트램폴린파크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성인을 위한 첫 트램폴린파크(바투트)가 개장했다. 4월 26일 주중앙도시에서 개최된 청년사업가 포럼에서 이 프

로젝트가 소개된 가운데 <포털>트롬펠린파크의 아르투르 만투로브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도시를 포함해 이미 러시아의 9개 지역에서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사할린의 트롬펠린파크는 우수 파크 중 하나라고 한다.

모든 장비는 국산이고 안전기준도 지키고 있으며 설계할 때 외국 동료들의 경험을 참고했다고 한다.

파크에는 6가지 유형의 트롬펠린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드러운>벽 3개와, 점프를 위한 포롤론 함정과 준비를 위한 공간이 있으며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교관과 감독자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 파크에는 성인과 5세 이상의 아동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7세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과 동반해야 하는 조건을 명심해야 한다.

파크에서는 팀별 피구(위시발리) 경기나 다른 단체들의 행사 진행도 가능하다. <포털>에는 곧 2세이상의 유아들을 위한 교관도 생긴다. 그 외에도 파크의 지휘부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학생들을 위한 특혜 이용도 준비 중에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батутный парк для взросл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первый батутный парк для взрослых.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форуме молод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26 апрел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батутного парка «Портал» Артур Мантур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компания уже реализовала девять подоб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в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днако сахалинский батутный центр можно назвать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с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се стандар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учтены.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использовали опыт и зарубежных коллег.

В парке установлены 17 батутов шести типов, есть тр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мягкие стены, поролоновая яма для прыжков, а также зона для разминки. Подготовлены инструкторы и инспекто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ледить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ю гостей. Центр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от пяти лет. Одно условие: ребенок до семи лет может находиться там только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взрослого.

В центре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dodgeball («Вышибалы») и другие корпора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 вскоре в «Портале» появится и инструктор для малышей от двух лет. Кроме того, владельцы парк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льготные посещения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различных социальных центров.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전러시아 토요일노동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전러시아 토요일노동의 날에 블라디미르카 창립기념비가 위치한 소공원,

수수야강 주변을 청소했다. 첫 토요일노동의 날은 많은 기업·기관 직원, 공무원, 대학생·학생들을 결집시켰다.



아침 일찍 공공경리직원들이 청소할 장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놓아 찬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침 10시부터 도시를 청소하며 정비했다. <고르니 위즈두호>스포츠단지 산기슭에는 사할린 북부소수민족문화종합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트크군 미호>(:조상의 땅이란 뜻) 사회단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회단체 회원들이 주지도와 함께 산기슭에서 뿌리 빠진 고목, 태풍에 부러진 나무 가지 등을 수거, 제거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토요일노동의 날에 총 4000m³의 쓰레기를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1

말하기 대회를 성공의 기회로 삼자

대화 Dialog

선생님: 게시판에서 이미 보았겠지만 한달 후에 우리 학과에서 말하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실력을 보여 주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물론 우수상 수상자는 우리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 여러 대학들이 공동 주최하는 말하기 대회에도 나갈 수 있고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나: 저는 말하기 대회 공고를 볼 때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평소에는 대범하고 명랑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 한다는 큰 단점이 있거든요.

올가: 선생님, 저도 그래요. 듣기, 쓰기, 읽기는 자신이 있지만 말하기는 자신이 없어요. 교실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면 긴장이 되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만약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감을 극복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피하는 소극적 방법과 불안감과 공포증에 정면으로 부딪쳐 이겨내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를 성공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나온 단어 Новые слова

수상자-призёр; 추천-рекомендация; 공고-официа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연합-союз, объединение; 대범하다-сдержанный; 영역-сфера, область; 초조하다-беспокойный; 국제학술대회-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침착-самообладание; 자책-самообвинение; 극복-преодоление; 대처하다-подготовка, 부딪치다-сталкиваться.

Лингвистика. Диалектология.

Корейский нормативный язык и диалект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표준어의 방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ормативным (литературным) языком считается сеульский вариан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ачестве нормативного данный вариант был признан в 1912 году. Причины того, что именно сеульский вариан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тал нормативным языком определяется тем, что Сеул выполнял рол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траны на протяжении около 600 лет. Как уже упоминалось в одном из предыдущих занятий, до становления Сеула (ранее Ханьянг) столицей королевства Чосон, в течение 475 лет столицей королевства Корё, предшественнице королевства Чосон, был город Кэсон.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Кэсоном и Сеулом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70 километ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иалек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звивавшийся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тысячелетия выполнял нормативную функцию и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литературным вариантом.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характерна особенность наличия в нем большого числа диалект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на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территории. Классификация корейских диалектов слож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ыделяют 6 групп диалектов: северо-восточную, северо-западную, центральную, юго-восточную, юго-западную и диалект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Каждая группа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диалектов. Также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в каждой провинции существует свой диалект внутри которого существует его разновидности - говоры. Кроме 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существование разновид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пользуемых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итае и странах СНГ.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диалект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лияли множество различных факторов. Здесь мы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и об этнических факторах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ареал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иалектов и др. Каждый диалект в большей или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отличается от нормативног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епени удаленности от столицы. Отличия выявляются и на фонетическом, и на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и на лексическом уровнях.

Диалект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интересный и объемный предмет. Его невозможно описать на нескольких страницах. Поэтому для наглядности приведем лишь один пример диалект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диалекта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который наиболее удален от нормативного язык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и по своим языковым особенностям.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농어촌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사할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 합니다!

곡명

- 1. S.Prokofiev Romeo et Juliette «Tanets rytsarei»--
- 2. 사할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Sakhalinskii detskii simfonicheskii orkestr»
- 2. A.Hachaturyan Aram «Vals» MUZYKA K DRAME M.LERMONTOVA "MASKARAD" 사할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Sakhalinskii detskii simfonicheskii orkestr»
- 3. 2. - 홀스트 생폴 <G. Holst - st.paul's suite> KYDO(Korea Young Dream Orkestra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 4.. - 바르톡 루마니아 댄스 <B. Bartok - Romanian Folk Dance> -- KYDO(Korea Young Dream Orkestra)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 5. Mozart requiem (모차르트 레퀴엠)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유즈노사할린스크시립오케스트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사할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KYDO(Korea Young Dream Orkestra) 농어촌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KOREA YOUNG DREAM ORCHESTRA Kydo

приглашение



Третий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молодёжн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м камерным городским оркестром

2017년 제3회 KYDO 희망나눔 사할린 청소년교류 연주회 & 유즈노사할린시립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
В рамках общегородск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5. 26. 2017. Fri. 19:00
Конгресс холл «Столица»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즈니스 센터

ASIANA AIRLINES 한진해운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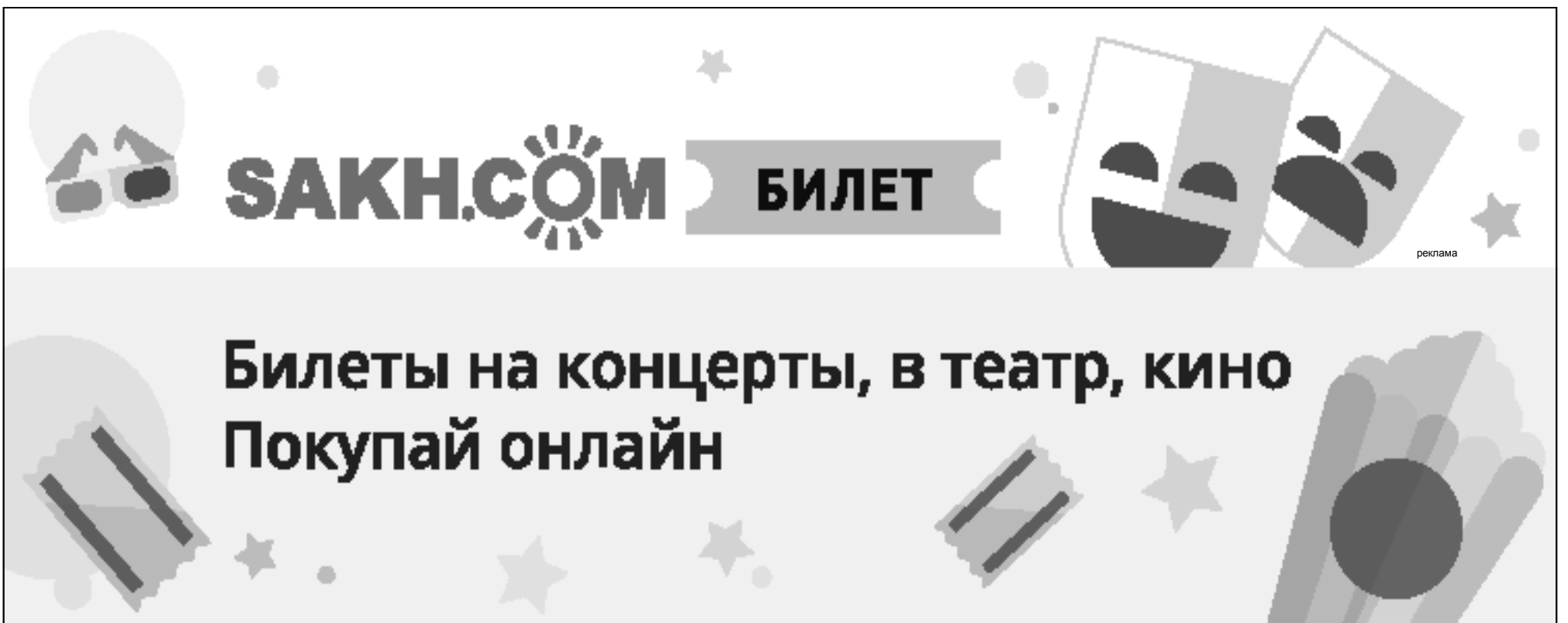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